

그 날

선희는 끝내 장례식에 가지를 못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들어올렸다가 다시 놓고 한 하얀 핸드백과 장갑이 떨어져 앉은 하얀 꽃잎처럼 흐트러진 화장대 앞에 몸을 반만 걸친 불안정한 자세로 앉은 채 그녀는 바작바작 졸아드는 것 같은 초조감에 마음을 조이고 있었다.

벽에 달린 벽시계의 바늘이 두 시를 가리키자, 뼈꾸기 모양을 한 그 시계는 뼈꾸기 소리로 두 번을 울었다. 선희는 갑자기 자기의 중량이 있는 대로 몸으로부터 새어 나가는 것 같은 환각을 느꼈다.

“늦었어, 이제 늦었어.”

발버둥을 치고 싶은 마음은 한편

“아니 아직 시작 될까말까야. 늦진 않았어.”

하고 서두른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핸드백과 장갑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시 힘없이 등이 달려 있지 않은 화장 의자에 몸을 앉혔다. 백과 장갑이 방바닥에 떨어져 백 속에 들었던 것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도 그녀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을 더욱 모든 것에서부터 가리거나 하듯, 그녀는 두 손으로 이마를 고이

고 눈을 감았다.

여전히 중량감이 없는 허허 공중에 떠 있는 심정이다. 그리고 그 허허 공중은 단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가득 차 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 이름은 또한 그녀에게 있어 전세계의 모든 것의 이름이기도 하였다.

지나간 긴 세월을 그로 하여 보람을 갖고, 그로 하여 울었다. 품에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그는 항상 선희화 함께 있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그로 하여 살아왔던 것이다.

그가 죽었다——

하늘이 무너진 것이다.

그가 죽다니, 그가 죽다니——

우선 온 것은 노여움이었다. 누구에게도 따질 수 없는 무력한 노여움 그것이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아무에게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안타까움—— 슬픔보다도 어처구니없는 노여움만이 앞서 있는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나 버린 뒤였으나 선희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서두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고 바쁜 마음이 허위적거리기만 하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서두르면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듯 그의 죽음이 실감으로 오지 않는 것은 죽어 간 사람의 죽은 얼굴을 보지 못한 탓인가, 아니면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에 죽음을 끝내 거부하려는 마음의 속임수 때문인가.

문 창호지로 걸러진(濾) 오후의 햇살이 감은 눈시울 속에까지 스며들어, 선희는 연포도빛 혼명(昏明) 속에 잠겨 갔다. 그러자 서서히 슬픔이 고여 왔다.

—— 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조차, 자기를 적어 넣을 수가 없는 존재였던가!

잔잔한 눈물로 씻어 내려 버리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심정이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지워 버리려고나 하듯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연포도빛 시야 속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에 지난날

의 열정적인 애정의 표정은 없고, 익혀(狎) 덤덤해진 지친 뒷모습만이 보였다. 얼마 전 헤어졌을 때 보이며 간 뒷모습이었다. 약간 굽은 등바닥에 군때가 묻어 있었다. 숨어서 사는 사이였기에 지나치게 오래 입은 옷을 벗겨 등판에 묻은 때를 빨아 줄 수도 없는 자기의 위치가 뼈아프게 사무쳐 그녀는 외면을 하듯 눈을 감아 버렸었다. 그 등은 걱정의 순간 어루만지던 정다운 등이 아니고, 먼먼 타인의 등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추억 속에 산재(散在)하는 하고많은 모습 중에 하필이면 애써 지워 버리려는 그 장면이 떠올라 온 것은 현재의 처참한 심정이 불러일으킨 일종의 자학(自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 자학의 경사(傾斜)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 마당에 가슴에 되살아 오는 모습이 겨우 ‘타인의 등’ 밖에 없다면 그녀는 살아온 것이 아니고, 사십 년 가까운 세월을 바래 버린 것이 아닌가.

선희는 더욱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로부터 받은 말들의 하나하나가 그로부터 받은 애무의 하나하나가, 하나도 빠짐없이 귀한 선물만 같았던 일생——설사 그의 죽음의 자리에 앉을 곳을 얻지 못하고 임종의 단말마에 타는 그의 입술을 축여 줄 수조차 없었다 하더라도 그는 그녀의 삶을 채색해 준 단 하나의 소중한 사람이었고, 자기는 일생을 그에게 바쳐 뉘우침 없는 여인이었다. 떳떳이 아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을 알면서도, 아내의 자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차선(次善)의 것에라도 괴롭게 앉아 ‘그들의 아내’로 일생을 지워 버린 여인——항상 죄의식에 떨며 사는 동안에 유락(愉樂)이란 언제나 조금씩 죄의 요소(要素)를 가지는 것이라고 믿어 버리게 된 여인이었다. 그런 일은 드문 일이었으나, 언젠가 죽은 영호가 가정의 불만을 쏟아 놓고

“선희, 난 이제 견딜 수 없어. 언제까지나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용기를 내구 이혼을 해야겠어. 마음에 없는 이중 생활은 괴로워.” 하고 선희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 속을 들여다본 일이 있었다. 긴 속눈썹에 그늘진 선희의 눈에는 웬일인지 눈물이 고여, 그것은 액체라

기보다 무슨 광물(鑛物)의 결정체(結晶體)처럼 투명한 윤곽을 지닌 채 떨어져 내렸던 것이다.

그녀는 누구에게 들리는 것이 두렵거나 하는 것처럼 속삭이듯 말했다.

“아무 죄도 없는 부인을 어떻게……애기는 어떡하시구…….”

그날 밤 영호를 돌려보내고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와 이혼을 할 테니 결혼을 하자면서, 그 싫다는 가정에 풍파가 일어날까 두려워 하룻밤도 머물지 않고 돌아가는 남자의 마음을, 그래도 믿는 자기는 어찌된 여자일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거짓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기에 거기 충실하려는 삶이었는데 생각할수록 죄장(罪障)만이 떠오르는 것 같은 괴로움——마음에 충실히 산다는 것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끝까지 몰고 갈 용기를 선희는 끝내 갖지 못했다. 그를 잃는 일에 비하면 다른 일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영호를 안 것은 스무 살 나던 여름이었다. 남쪽 항구 P시. 영호는 학병으로 징집은 되었으나 그의 소속 부대가 P시의 항만 수비대로 주둔하게 되어 국내에 있었다. 그러면서 역시 기울어져 가는 전국(戰局) 속에서 일본 군인으로 있다는 불안과 한국인으로서 일군(日軍)의 군복을 입고 있다는 굴욕감으로 자기(自棄)의 심정에 빠져 있었다.

그런 영호는 아직 귓전에 숨털이 소슬거리는 선희를 선창에서 보았다. 반소매 원피스에 부드럽게 뻗은 팔하며 가냘픈 목이 청순 그대로의 소녀라고 느끼며, 서울 출신인 영호에게는 괴물 같은 명계를 사고 있는 소녀가 이국(異國) 소녀만 같았다.

단정한 영호가 낯모르는 소녀에게 쉽사리 말을 걸게 된 것은 군복을 입은 데서 온 거친 용기인 까닭이었을는지 모른다. 그는 선희 옆에 다가가서

“건 뭐라는 이름이죠?”

하고 물었던 것이다. 낯 모르는 일본 군복의 청년으로부터 받은 질문이 우리말이었다는 것에 선희는 적이 놀라, 한참은 대꾸를 못 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영호도 자기의 무례함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다. 두번째의 그의 말은 저도 모르게 더듬어 나왔다.

“저, 저 처음 보는 거라서. 그 그것, 뭣하는 거죠?”

선희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사전에는 ‘멍게’라고 나와 있지만 이곳에선 ‘운명거지’라 합니다.”

표준어에 남쪽 사투리를 섞은 말투가 귀에 익지 않은 까닭에 그녀의 맑은 음성이 외로운 마음에 음악같이 울렸다.

“어떤 맛이죠?”

영호가 물었다. 선희는 대답 대신 멍게 장수의 창칼을 빌리더니 젓꼭지 같은 것이 몇 개나 붙어 있는 멍게 꼭지를 갈라 얼른 보기에는 조그만 파인애플처럼 보이는 알맹이를 발라내어

“처음에는 좀 떨떨합니다만 먹어나면 꼬시(고소)합니다.”

하고 영호에게 권했다. 서울서는 보지 못하던 타입의 솔직한 소녀라고 생각하며, 영호는 징그러운 것을 참고 권하는 대로 멍게를 먹었다.

“조선 사람인 모양인데 우찌 일본 군대에 있었습니까? 학병입니까?”

선희가 물었다.

“왜 바보처럼 끌려 나왔느냐구 경멸하시나요?”

영호의 대답은 처음부터 좀 꼬여 있었다. ‘말’에 대한 감각이 무뎠던 남쪽 처녀는 영호의 이 말에 다시 놀라 또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가 발 밑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든 그녀는 똑바로 영호를 지켜보며 또렷하게

“그렇기(그렇게) 비꼬일 이유는 없으니깐 가야 하겠습니다.”

하고 도톰한 입술을 꼭 다무는 것이었다.

이런 태도에도 서울 소녀에게서는 보지 못하던 신선한 솔직성이 보여, 영호는 그녀를 농치기가 싫었다.

그 후 둘이는 자주 만났다. 우정 약속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창에 있는 군수품 창고 앞에 보초를 서고 있는 영호에게 선창에 생선을 사러 나왔던 선희는 먼데서 손짓으로 곧잘 통하는 말을 하곤 하였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다 외로운 사람이었다. 선희는 편모 슬하의 외딸로 쓸쓸히 자라난 소녀였다. 아직도 소지주 꼴은 되어 생활의 걱정은 없었으나, 도쿄로 유학을 가겠다는 딸을 잠시라도 떼기 싫어 사흘을 굶은 끝에 딸의 마음을 고쳐 잡았노라고 무슨 전공(戰功)이나처럼 자랑하는 홀어머니하고의 따분한 생활이라는 것을 영호는 알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희의 환경은 더욱 그에게 친밀감을 가지게 하였다. 그 역시 부모를 잃고 하나 있는 형에게 기대어 자라 온 외로운 몸이었던 것이다. 어려서부터 수재로 이름이 나 가정 형편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대학에 가정 교사 자리를 얻어 고학할 계획 끝에 들어갔었던 것이 그만 병정으로 끌려 나오게 된 것이라고 쓰게 웃는 영호는 '선희를 알고부터는' 학병에 끌려 나오게 된 것이 다행이었다고 덧붙이는 것이었다.

둘이서 달 뜨는 바다, 파도 치는 바다를 같이 보는 날이 늘어 갔다. 적국의 군복을 입은 서울 청년과 사투리가 귀여운 남쪽 소녀는 험해져 가는 전국도 또 굴욕스러운 군복 차림도 잊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가는 흰 배에 꿈을 담아 보내기도 하고, 갈매기 떼들의 우짖음에 생활의 소요를 보고 생활에의 관심을 새롭게 할 때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여름이 가고 가을도 어느덧 깊어 가고 있었다.

하루는 선창에 나간 선희를 보자 어디선지 영호가 뛰어와 그녀의 손을 잡고 생선 도매 시장 쪽으로 끌고 갔다. 아침이면 넓은 콘크리트 바닥에 빈틈없이 생선이 깔리는 그 건물은 한낮 지난 이때, 그저

텅 빈 창고에 지나지 않았다.

영호는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눈알만 돌려 사방을 살핀 후 소리를 죽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선희, 큰일났어. 확실친 않아도 우리 부댄 북지루 가게 되나 봐. 미국은 오키나와에 벌써 상륙을 했다는데 놈들은 최후 발악을 하려는 거야.”

걱정과 놀라움에 선희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그래서 우얌라카십니까?”

영호가 더욱 다가서며 선희의 손을 두 손으로 눌러 잡았다.

“선희, 난 결심했어. 날 도와 주어. 난 암만해두 탈주를 해야겠어.”

선희는 동의의 뜻으로 있는 대로의 힘을 눈과 손에 주었다. 크게 뜬 눈으로 영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쥐어진 손에 힘을 주어 그의 손을 자기 쪽에서 눌렀다. 그리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확실친 않아도 우린 모레 새벽에 떠날 예정인가 봐. 제일 좋은 방법이란 얼른 생각나지 않으니깐 우선 시간적으로 더듬어 갈 수밖에 없어. 첫째로 역전의 혼잡에 묻혀 버리는 것——그러나 이건 거의 불가능해. 새벽이라면 아무리 전시라도 그 속에 묻혀 버릴 정도의 혼잡을 기대할 순 없어. 둘째로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건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기는 동작이야. 그리고 그 지점두 생각해야 허구. 셋째는…….”

영호는 주위섬겼다. 그러나 하나도 성공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긴장으로 선희는 몸이 떨렸다. 그러면서 그녀는 재빨리 머리를 회전시키고 있었다.

“이랍시다. 우선 운제(언제) 떠나게 되는지 확실히 알아 주시소. 그러면 내가 조선옷을 한 벌 준비해 올립니다. 당신은 기차에 타기 전에 정렬을 하시겠지요. 변소에 간다 카튼지 연필을 사오겠다 카튼지 구실을 맨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정렬 속에서 빠져 나와 역 구내

의 변소꺼정 오시면 미리 약속했던 변소간에 내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는, 머리는 요즘은 군인이 아니라도 모두 깎고 있으니깐 걱정 없고.”

“글쎄, 변소엘 가게 해 줄지…….”

“안 되든 영호 씨가 연극을 하시야 됩니다. 말하자면 갑자기 저쪽을 보고 ‘아아’ 하고 반가운 듯이 놀라는 것입니다. 뜻밖에 우운 견송인(見送人)이꼬 하는 얼굴을 하고, 아주 씩씩하게 선임 하사한테 부탁을 하는 기이지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았다. 둘은 아무런 구체적인 방법은 발견 못 한 채 우선 선회의 제안으로 역까지 가서 역의 혼잡 정도를 살핀 후 다시 한 시간 후에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역에 들어서자 선회는 합당하다고 생각한 자기의 의견의 가능성을 확신하였다. 역 구내는 사람과 짐과 오물로 가득 차 어느 누가 혼잡 속에 묻혀 버리는 것은 혼잡 속에서 어느 특정인(特定人)을 캐어 내는 일보다 훨씬 쉬운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나는 역원을 붙들고 물었다.

“내일 아침 차를 탈라 카는데 기차표를 미리 살 수 있습니까?”

역원이 천만에라는 표정을 짓고

“미리라니요. 개찰 전 두 시간 전부터 팔지만 보통으로는 사기 어렵을(어려울) 끼이요. 저 저 사람을 보이소. 모두 차표 살라꼬 저리 기다리고 있는 기이라요.”

선회는 시치미를 뚝 뗐다.

“오매야, 그라든 대합실에서 자는 사람도 있겠네.”

“사람도 있겠네가 며요. 밤이나 낮이나 사람에 치어 마 죽을 지경이라. 기차는 그대로 시간마다 떠나는데 대합실이나 구내에는 여전히 사람이 백혀 있으니, 떠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기인지.”

역원은 아무리 귀여운 소녀가 상대라 하더라도 군말이 길었다고

생각했는지

“누구든지 대신이라도 기다리게 해야 사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저쪽으로 가 버렸다. 어기적거리듯 걷는 뒷모습을 보면서 선희의 가슴은 뛰었다.

그녀는 한달음으로 다시 선창의 생선 도매 시장으로 달려갔다. 영호는 이내 나타났다. 출발 기일은 확실치 않으나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일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음으로 의심을 살 것을 염려하여 총총히 발길을 돌렸다.

선희는 그 걸음으로 이모집을 찾았다. 물자가 귀한 전시였으므로 시장에 간들 원하는 것이 얻어질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의 바지저고리가 한 벌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모부의 옷을 빌렸다.

그날 저녁 선희는 어머니에게 가장 친한 친구인 정순이가 결혼 날 짜를 받고 결혼 전에 며칠을 같이 지내잔다고 말을 꺼내었다. 어머니는 다 큰 처녀가 아무리 친하기루 어찌 남의 집에 가서 묵을 수 있겠느냐고 딱 잡아떼었으나, 선희는 끝내 물고늘어져 그러면 이틀만 묵고 오라는 허락을 받았다.

선희는 아버지가 쓰다 놓고 죽은 책상 서랍을 뒤져 묵은 안경을 끄집어내었다. 시골 신사였던 그는 근시도 원시도 아니면서 안경을 멋으로 쓰고 다녔다. 안경은 선희의 얼굴에는 좀 커서 귀거리가 벗겨지려 하였으나 도수가 없어 좋았다. 친구 집에서 묵는 동안 갈아입을 옷이라는 핑계로 이모부의 옷을 썬 보따리 속에 안경을 넣고 선희는 집을 나갔다.

골목길을 빠져 나오자 선희는 달음질을 쳤다. 이윽고 아주 낯선 길가에 나오자 안경을 꺼내 썼다. 한창 멋으로 만든 안경은 테가 없어 남녀 어느 쪽으로도 쓸 수 있어 이것도 좋았다.

그날 저녁부터 선희는 소변이 콘크리트 바닥에 흥건히 고인 역 구내의 변소 가까운 곳에 오그리고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의자마다

의 변소꺼정 오시면 미리 약속했던 변소간에 내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는, 머리는 요즘은 군인이 아니라도 모두 깎고 있으니깐 걱정 없고.”

“글쎄, 변소엘 가게 해 줄지…….”

“안 되든 영호 씨가 연극을 하시야 됩니다. 말하자면 갑자기 저쪽을 보고 ‘아아’ 하고 반가운 듯이 놀라는 것입니다. 뜻밖에 우운 견송인(見送人)이꼬 하는 얼굴을 하고, 아주 씩씩하게 선임 하사한테 부탁을 하는 기이지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았다. 둘은 아무런 구체적인 방법은 발견 못 한 채 우선 선회의 제안으로 역까지 가서 역의 혼잡 정도를 살핀 후 다시 한 시간 후에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역에 들어서자 선회는 합당하다고 생각한 자기의 의견의 가능성을 확신하였다. 역 구내는 사람과 짐과 오물로 가득 차 어느 누가 혼잡 속에 묻혀 버리는 것은 혼잡 속에서 어느 특정인(特定人)을 캐어 내는 일보다 훨씬 쉬운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나는 역원을 붙들고 물었다.

“내일 아침 차를 탈라 카는데 기차표를 미리 살 수 있습니까?”

역원이 천만에라는 표정을 짓고

“미리라니요. 개찰 전 두 시간 전부터 팔지만 보통으로는 사기 어렵을(어려울) 끼이요. 저 저 사람을 보이소. 모두 차표 살라꼬 저리 기다리고 있는 기이라요.”

선회는 시치미를 뚝 뗐다.

“오매야, 그라든 대합실에서 자는 사람도 있겠네.”

“사람도 있겠네가 머요. 밤이나 낮이나 사람에 치어 마 죽을 지경이라. 기차는 그대로 시간마다 떠나는데 대합실이나 구내에는 여전히 사람이 백혀 있으니, 떠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기인지.”

역원은 아무리 귀여운 소녀가 상대라 하더라도 군말이 길었다고

생각했는지

“누구든지 대신이라도 기다리게 해야 사게 될기입니다.”

하고 저쪽으로 가 버렸다. 어기적거리듯 걷는 뒷모습을 보면서 선희의 가슴은 뛰었다.

그녀는 한달음으로 다시 선창의 생선 도매 시장으로 달려갔다. 영호는 이내 나타났다. 출발 기일은 확실친 않으나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일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음으로 의심을 살 것을 염려하여 총총히 발길을 돌렸다.

선희는 그 걸음으로 이모집을 찾았다. 물자가 귀한 전시였으므로 시장에 간들 원하는 것이 얻어질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의 바지저고리가 한 벌 필요하다고 거짓 말을 하여 이모부의 옷을 빌렸다.

그날 저녁 선희는 어머니에게 가장 친한 친구인 정순이가 결혼 날 짜를 받고 결혼 전에 며칠을 같이 지내잔다고 말을 꺼내었다. 어머니는 다 큰 처녀가 아무리 친하기루 어찌 남의 집에 가서 묵을 수 있겠느냐고 딱 잡아떼었으나, 선희는 끝내 물고늘어져 그러면 이틀만 묵고 오라는 허락을 받았다.

선희는 아버지가 쓰다 놓고 죽은 책상 서랍을 뒤져 묵은 안경을 끄집어내었다. 시골 신사였던 그는 근시도 원시도 아니면서 안경을 멋으로 쓰고 다녔다. 안경은 선희의 얼굴에는 좀 커서 귀거리가 벗겨지려 하였으나 도수가 없어 좋았다. 친구 집에서 묵는 동안 갈아입을 옷이라는 핑계로 이모부의 옷을 싣 보따리 속에 안경을 넣고 선희는 집을 나갔다.

골목길을 빠져 나오자 선희는 달음질을 쳤다. 이윽고 아주 낯선 길가에 나오자 안경을 꺼내 썼다. 한창 멋으로 만든 안경은 테가 없어 남녀 어느 쪽으로도 쓸 수 있어 이것도 좋았다.

그날 저녁부터 선희는 소변이 콘크리트 바닥에 흥건히 고인 역 구내의 변소 가까운 곳에 오그리고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의자마다

사람이 차서 앉을 자리를 얻는다는 건 별따기보다 어려운 그 무질서가 그녀는 그저 대견하기만 하였다.

지옥과 같은 역의 흡잡 속에서 밤을 깊어 갔다. 선희는 콘크리트 바닥에 놓은 짐보따리 위에서 잠이 든 무수한 사람들 틈을 누비며 플랫폼이 보이는 목책 앞과 변소 사이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오락가락 하였다.

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은 수마(睡魔)에 못 이겨 짐보따리를 벤 채 그들 자신이 던져진 짐짝같이 고달픈 잠이 들어 있었으나, 역은 밤새껏 눈뜨고 움직이고 있었다. 어둠 속을 기적이 울고 사람이 타지 않은 차들이 꼬리는 어둠에 묻혀 버린 긴 차량을 거느리고 들어왔다간 들어왔던 레일을 비껴 나가 다른 궤도로 옮겨 가서 거기서 증기(蒸氣)의 숨을 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군대의 정렬은 아침이 되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또 하루를 기다려야만 하였다.

같은 소란과 혼잡과 오예(汚穢) 속에 밤이 가고 새벽이 왔다. 군대들은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사흘을 세수를 못 한 때물은 얼굴로 선창을 찾아갔다. 생선 도매 시장과 생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턱대고 한 사람 붙들고, 저기 군수 물품 창고는 아직도 그 부대가 지키고 있느냐고 물었다.

“군대 일을 누가 알끼이요. 하지만 전에 있던 군인들은 바끼인 모양입디더. 어제 저녁에 똑딱배로 오륙도 밖의 군함 있는 데까지 실리어 가는 걸 바았으니깐.”

선희는 끝까지 듣지를 못했다. 생선 비늘이 늘어붙고, 생선 내장에서 나온 오물이 군데군데 말라붙은 더러운 콘크리트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버렸던 것이다.

휴전이 되던 해 이른 가을이었다. 환도를 서두르는 피난민들은 돌

아갈 준비에 바쁘면서, 짧지 않던 피난 생활 동안에 정든 현지민들과의 석별의 아쉬움을 풀기 위하여 어울려 갖는 시간들이 많았다.

중심지 변화가에 큰 미용실을 갖고 있던 선희에게는 장소 까닭인지 서울 손님들이 많았다. 아직도 옛된 선희를 그들은 ‘마담’ 취급을 하지 않고 ‘미스 서’라고 불렀다. 사실 선희는 아직도 미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정당한 호칭이기도 하였다. 나이는 젊었지만 설비하며 규모와 기술 모두가 다른 동업들의 추종을 용서치 않아 고정적인 손님 수를 갖고 있었다.

미스 서의 나이는 대중할 수가 없었다. 비치듯 맑은 피부와 도톰한 입술, 매끄러운 뺨은 스물을 갓나온 소녀마냥 앳되었으나, 어찌다 눈 속을 지나는 그들을 보일 땐 한 인생 살고 난 사람 같은 우수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선희는 상냥하고 밝고 솔직하였다. 서울 손님들은 자기네들에게 결여된 그녀의 솔직성과 소박한 정성 같은 것들에 끌렸고, 원주민들은 흔히 서울 손님들이 드나드는 데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선희의 미용실에는 그렇게 서울 손님들까지 단골로 삼고 있는 것에 오히려 자랑을 느끼며 발길을 꾸준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서울과 이 도시의 부인들이 환도를 앞두고 선희와 더불어 온천까지 발을 뻗쳐 하루의 청유를 갖게 된 것은 누가 먼저 제안한 것조차 확실치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일행은 일제 때 일본 거부가 별장으로 쓰고 있던 것을 여관으로 고친 집을 택했다. 온천 시설은 좋지 못했으나 그 곳은 탕원(湯元)이기도 하였고, 또 명원(名園)으로 이름 높은 정원이 있기도 하였기 때문이었다.

항상 일행의 중심이 되어 있던 선희가 무슨 까닭으로 혼자서 정원을 거닐게 되었던지는 기억에 없다. 뜨거운 온천의 온기에 상기된 몸을 식혀 보려는 생각에서였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녀는 영산홍이 큰 바위처럼 퍼져 있는 곁을 지나, 산다화(山茶花)나무 앞에 서서, 어디서부터지 흘러내리는 가는 시내 위에 걸쳐진 대통에서 떨어지는 맑

은 물을 보고 있었다. 혼자 있을 때의 버릇으로 그녀의 얼굴에는 이때도 우수가 깃들어 있었다. 한적한 정원에는 무성한 나뭇가지에서 작은 새들이 울었다. 대통에서 떨어져 내리는 물소리에 섞여 저만치서 여러 사람의 웃음 소리와 현기(絃器) 소리가 들리기도 하였다.

선희는 까닭 없이 멍하고 서 있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다간 활동적인 그녀답지 않은 동작이 있었기 때문인지 갑자기 꿈에서 깬 것처럼 소스라쳐 움직이곤 하였다. 이때도 선희는 갑자기 대통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흥미를 잃었다. 몸을 돌려 여럿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발을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있는 나무들의 하나처럼 선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언제 와 있었는지 눈이 어글어글한 남자가 한 사람 서향나무 옆에서 가만히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중기에 균형이 잡힌 몸매, 넓은 이마에 곧은 코, 가만히 다문 듬직한 입술, 영호임에 틀림이 없는 그 사람이 남방(南方)에 간 사람은 살아오기를 바랄 수 없다는 그 남방에서 돌아와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선희는 다음 순간 자기의 착각에 스스로 쓰게 웃고, 그제서야 자유로워진 몸을 움직이려 하였다. 영호를 잊지 못하는 마음이 먼저도 같은 경험을 되풀이시켰던 일을 상기하면서 그런 자신이 쑥스러웠던 것이다.

사나이는 여전히 영긴 듯한 시선을 선희에게 부은 채 서 있었다. 선희는 남자의 응시에 태연할 수 있다고 내심 자부하는 여자다. 우정 표정을 굳힌 채 그 옆을 지나려 했을 때 남자의 얇은 음성이 들려왔다.

“혹시나 서선희 씨, 창씨명으로 시로야마 요시코 씨가 아니실까요?”

그 음성! 선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짝 가셔졌다. 눈이 산소(酸素) 속에서 타는 불마냥 파아랗게 타면서 크게 뜨여진 채 깜박이지도 않는다. 그것은 바야흐로 쓰러져 가는 사

람의 얼굴이었다. 영호는 저도 모르게 다가와서 바쁘게 선희의 몸을 부축했다. 선희는 몸의 중량을 있는 대로 쏟아붓듯 몸 전체로 그의 품속에 쓰러져 갔다.

삐꾸 삐꾸 삐꾸 삐꾸

벽에 걸린 삐꾸기가 네 번 울었다.

선희는 눈을 뜨고 이마에 고였던 손을 떼다. 얼굴을 들자 앞을 막은 거울 속에 앉아 있는 소복의 여인이 보였다. 창백하고 매끄러운 뺨 위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흩어져 처연(淒艷)한 얼굴이다. 슬픔보다도 외로움이 더욱 짙다.

그녀는 남의 것이나처럼 냉정한 마음으로 자기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티도 주름도 없는 고운 살결인데 옅게 분이 입혀져 있다. 눈썹에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손이 가 있고, 입술도 얼른 보아선 제 입 같으나 다듬어져 있다. 이런 화장이 가장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미용사로서 선희는 잘 알고 있다. 그녀는 장례식에 가기 위하여 정성껏 몸을 단장한 것이다.

그의 죽음이 곧 자기의 죽음이고, 그의 육신이 땅에 묻힌다면 자기의 여자로서의 목숨도 그와 함께 묻어 아낌없는 심정에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그녀는 진실에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 슬픔의 날에 몸을 가꾸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선희는 눈에 보이도록 몸을 떨었다. 명칭(名稱)이란 결코 허명(虛名)에 지나 버릴 수는 없고 아무리 실질이 없는 것이라도 어느만큼의 자격은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새삼 아프게 깨달았던 것이다.

자기가 진실로 어엿한 그의 아내라면 새끼 오라기를 머리와 허리에 감고 되도록 흉칙한 모습으로 슬픔을 표현하여야 하였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가 죽었는데 깨어진 하늘이 보기 역겨워 빼어 버려도 시원치 않은 눈에까지도 화장에 마음을 썼던 자기는 천하의 악녀가 아니었던가.

갑자기 슬픔이 솟구쳐 선회는 의자에서 떨어져 내려 방바닥에 뒹굴며 울었다.

그의 발상(發喪)날부터 그녀는 미용실을 쉬게 하고 있었다. 상사(喪事)는 다른 곳에서 당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집에서 당한 것이기에 상사집에서 일상사(日常事)가 벌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아무도 휴업의 이유를 모르면서 종업원들은 혹은 고마워하고, 혹은 영영 폐업이 되는 것이나 아닐까 기우(杞憂)하였다. 그렇다. 일생을 이렇게 뼈저트하지 못하게 살아왔다. 장례식에 갈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지나친 비탄을 보일 수는 없다. 표면상으론 원만한 가장이었던 그의 경력의 마지막 마당에 와서 힘을 줄 수는 없다. 얽게 한 화장은 자신을 어여뻐 보이려는 허영이 아니고 참기 힘든 일을 견디며 있는 피나는 노력에 불과한 것이다.

눈앞에 상사집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방 출신인 그녀는 서울 풍속은 잘 모른다. 세세한 것을 모르는 까닭에 알고 있는 일들만이 더욱 또렷하게 확대되어 오는 것이다. 병풍이 둘러져 있다. 저쪽에는 그의 주검이 있고 이쪽에는 짚을 깔 위에 아내와 자녀들이 짚 위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통곡을 하고 있다. 비탄에 지친 미망인을 보다 못해 조객들이 안아 일으켜 위로의 말과 동정의 눈물이 쏟아진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한창 나이에 가시다니.”

미망인의 통곡 소리가 다시 높아졌다가 흐느끼면서 낮두리가 시작된다.

“글쎄 눈 한 번 부라려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랬던지 자애가 남달리…….”

그리고 또 눈물바다——

초상집의 요란한 슬픔과, 화려하게 꾸며지고 조용하게 정돈된 이방의 소리 없는 슬픔과 어느 쪽이 더 기막힌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쪽에는 저쪽같이 ‘이제부터 어떻게 사나’ 하는 공리성은 없다. 그의 죽음에 울고 그의 사랑에 운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

을.

선희는 잘 울지를 앓는 여자다. 성인 후에 그녀가 운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온천의 별장 정원에서 영호와 재우했을 때와, 언젠가 들어서 남몰래 절에 갔을 때와 이번이었다. 선창에서 실신했던 선희는 모든 거짓말이 탄로되어 어머니의 큰 노여움을 샀었다. 흠어머니는 두 젊은이가 입술조차 서로 포개 보지 않은 청순한 사이였다는 것을 이해 못 하고 떠들어대었기 때문에 선희에게는 오히려 추문이 감겨 버렸다. 선희는 그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당당히 자기 사랑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선희 방에는 아직도 탁자 위에 수실이 퇴색한 박달나무 목탁이 놓여 있다. 들어서 절에 놀러 갔던 기념으로 사 온 목탁이었다. 충청도에 있는 그 절을 영호는 그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된 기회를 타서 가기로 하여 둘은 따로따로 떠났다. 명사로서 거추장스러운 수행원이 좇아다니는 그는 그 곳 가까이 있는 고향까지 발을 뻗쳐 오래 못 해 온 성묘를 하고 싶은데 풀 깊은 두뭇골까지 남이 따라오는 것은 송구하다고 한사코 사양하여 혼자가 될 수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산절에서 둘은 어엿하게 부부 대접을 받았다. 누가 보아도 중년의 부유한 안정된 가정의 한 쌍이었던 것이다.

선희는 불전에 시주를 두둑히 놓았다. 자기의 행복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누가 건립한 절인지 불상이 많고, 어느 시대의 특징인지 불상들은 이상화된 우상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特定人)의 초상이 아닐까 싶도록 인간적인 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대웅전(大雄殿) 본존(本尊) 옆에 시립해 선 관음 보살은 표표히 흘러내리는 불의 자락으로 틈틈이 엿보이고 있는 불체가 나쁜 여체처럼 관능적(官能的)인 것조차 느끼게 하였고, 탕화(幀畵)가 걸려 있는 벽쪽에 결가(結跏)하고 앉은 불상은 튀어나온 배를 미처 불의로 가리지 못한 채 거기 앉아 있는 것같이 서민적인 체온(體溫)까지 느끼게 하는 털털한 모습이었다.

이런 불상들이 안치되어 있는 절간에서 선희는 연인과 지내는 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불도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상들을 옆채에 두고 연인의 애무를 받을 수도 있었다.

이튿날 산채와 튀각을 찬으로 조반을 든 후 절 뜰에 내려서니, 사승(寺僧)이 가까이 와서 합장하며 허리를 굽혔다. 충분 이상의 시주로 보아 소홀히 할 수 없는 손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양이었다. 그는 두루 절의 유서(由緒)를 설명하고 끝으로 이 절은 옛날에는 여인 금제(女人禁制)의 지역이었는데 본존과 그 곁좌상(結跏座像)의 부처님의 영검(靈驗)이 이름 높아 거기 얽히는 옛이야기들이 많다고 하며 한 토막 일화를 말해 주었다.

어느 때인가 어느 대갓집 과부 며느리가 청상(靑孀)의 몸을 이루지 못하는 잠에 전전하는 동안에 짧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꿈속에서 그녀는 한 송이 꽃이었다. 피어 있는 꽃이 아니고 불이 붙어 텅구는 꽃이었던 것이다. 불은 끄려 해도 끌 수 없고 괴롭게 텅굴고만 있는데, 서쪽에서 한 줄기 광명이 비쳐 오더니 그 불은 꺼지고 그윽한 향기가 퍼져 갔다. 황홀 속에서 잠이 깬 그녀는 깨고 크게 부끄러웠다. 풍요한 육체 속을 미칠 듯 도는 피가 끓어 주체치 못하던 자기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그녀는 그 광명이 비쳐 오던 방향을 더듬어 이 절의 소재와 영검 높은 곁좌상 부처님의 소문을 들었다. 몸을 저미는 번뇌를 벗고 그 부처님의 대자 대비(大慈大悲)에 목욕고자 그녀는 이 절을 찾았다. 그러나 산문 앞에서 사흘을 대죄하듯 엎드려 청원하였으나 여인 금제의 법칙은 굳어 끝내 경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그녀는 산골을 타고 얼마쯤 떨어진 곳에 암자를 세워 거기서 법을 닦았다. 불법을 닦는 암자였으나 불상이 없는 것은 그녀가 떨어진 그 곳에서 보지 못한 보이지 않은 그 불상에 예불을 드렸던 까닭이라고 한다.

“그 암자가 저 산굽이를 돌면 지금두 있습니다.”

사승은 긴 이야기를 이렇게 맺었다.

선희는 왠지 자꾸만 울먹여 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옛날 여비(女卑)에 익은 여인들이 여인을 부정(不淨)하다고 꺼리는 그 불법에 매어달리던 슬픔이 사무쳐 하염없이 눈물이 뺨을 흘렸다. 그 풍요한 젊은 과부는 살아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여인이면 한가지로 부정한 것으로 꺼리는 불법에 매어달릴 수밖에 그의 슬픈 정염(情炎)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종교에는 어떤 관능적인 요소가 섞이게 마련이지만 멀리서 보이지 않는 불상에게 예불을 드리는 심정이 자기의 영호에의 사모에 흡사하다고, 선희는 옛 사연이 가깝게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부드러운 영호는 선희의 슬픔을 알았는지 그녀의 얇은 손을 쥐고 한 손으로 그 손등을 쓸어 주었다. 눈물을 담은 채 쳐다본 남자의 얼굴은 아침 햇살을 받아 이마에 새겨진 주름이 또렷하였다.

선희는 더욱 아쉬워 오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흘러간 시간들은 물같이 덩덩히 흘러만 가 버린 것이 아니라는 실감이 직선으로 가슴에 와 닿았다. 흐르는 시간은 흐른 만큼의 실질(實質)을 갖추게 마련이라는 이 평범한 진리——이것 앞에 그녀는 몸을 던져 버린 것이다.

칠 년 만의 온천 별장 정원에서 만난 영호에겐 이미 처자가 있었다. 칠 년을 지나 칠 년 전과 같기를 바라는 외람된 마음은 없었으나 선희는 슬퍼서 울었다.

아내의 자리가 그녀 앞에서 거절을 보인 것은 영호 까닭이 아니고, 영호의 사정 때문이라고 남자의 정을 받아 행복하기만 하던 선희였다. 은인의 딸이라는 아내를 저버린다는 것은 이중의 죄가 되는 것이라고 그늘을 택한 것은 오히려 선희였던 것이다.

그러나 상당히 저명한 실업가인 그가 가족과 더불어 단란하는 장면을 월간 잡지 같은 데서 볼 때, 또

“선희허구 있을 때만 난 진실을 찾은 것 같아. 여기를 한 번 벗어나면 허위와 가식과 기만뿐이거든.”

하는 그가 그 ‘기만’ 속에서 하나씩 자녀의 수를 늘려 가는 것을 알았을 때, 선희는 자기를 위로하여 타일러야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영호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한사코 말리는 자기 심정을 그녀는 자기도 알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의 사이는 몇 사람을 제하고는 아무도 몰랐다. 하물며 선희의 슬픔, 선희의 한 같은 것은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어머니의 사후, 가산을 정리하여 별인 P시의 큰 미용실을 오직 영호 가까이 있고 싶은 이유만으로 정리하고 상경하여 서울 중심지에 큰 미용실을 차린 선희는 아름답고 솔직하고 친절한 성공한 독신주의의 서른아홉의 여인이었다. 남자 친구는 하나도 없고 미용실에 다니는 부인들하고 잘 어울려 인기가 컸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영호의 열의가 예 같지 않게 된 것은 그의 건강에 원인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나, 남들이 알면 이중 인격자, 이중 생활자, 신사의 탈을 쓴 색마——이렇게 불릴지 모르는 그의 생활이었지만, 그 이중 생활을 괴로운 줄 모르고 자기에게 보여 준 열정, 그 사랑을 선희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불타는 여인이었고, 그의 사랑의 확신 아래 행복하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따지고 따져도 그런 생활을 계속해 온 그에게서 위선자라던가 에고이스트라는 느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 앞에서는 비판의 의지조차 잃어버리는 눈이 먼 어리석은 여자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요즘 와서의 그의 태도는 때로는 선희의 꿈속에까지 쫓아와서 그녀를 괴롭혔다.

반년 남짓 전부터이다. 영호는 만나도 어딘지 열의가 보이지 않았다. 약속을 두어 번 어기기조차 한 일도 있다. 나이 마흔다섯이면 남자로서 한창 장년인데 숨겨 두는 연인을 어찌다 만나도 덤덤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심상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정상적인 부부라면 차차 성(性)이라는 비린내를 지우기 시작할 나이일지도 모르나, 선희는 평탄한 자리에 앉은 몸은 아닌 것이다. 그녀는 남자의 변심을 본

것 같아 현기를 느낄 때가 있었다. 선희가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게 된 것은 그 때부터였다. 우정 선정적인 몸가짐을 보이고 헛되이 헤어진 후엔 자신 속의 ‘창녀’를 느끼고 소름이 끼치기도 하였다. 남자의 사랑을 육체로 따져야만 하는 ‘그들’의 몸이 죄스러워 스스로 택한 자리가 두려웠다.

영호의 발길이 차차 뜨게 되었다. 어쩌다 만날 때에도 부드러운 시선으로 어루만지듯 쳐다만 보는 그가 안타까워 선희는 몸부림쳤다. 그 시선을 연민(憐憫)의 그것이라고 읽고 슬픔이 복받치기도 하였다.

생각하면 지난 몇 달 동안은 그녀에게 있어 회오리치는 흉포(兇暴)의 서정(抒情)으로 찬 계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횡포한 걱정이었다 할지라도 역시 그에게 바쳐졌던 뜨거운 애정이었던 것이다.

뼈꼭 뼈꼭 뼈꼭 ——

벽의 뼈꾸기는 한참을 울었다. 여섯 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남으로 난 밝은 방이었으나, 저물기 쉬운 가을 해는 기울어져 어둠이 찾아들고 있었다.

선희는 쓰러진 채 죽은 듯이 미동도 않고 있었다. 중량이 새어 버린 것 같은 것은 물리적(物理的)인 감각만이 아니고, 그녀의 삶의 내용(內容)도 그 중량처럼 그녀로부터 사라져 버린 것을 뼈아프게 느꼈다. 사랑이 없는 아내였다 할지라도 그의 부인은 그의 육신을 잃고도 남는 것이 있었다. 아무개의 미망인라는 기념비(記念碑)와 그가 남긴 자녀들과 생전의 그의 명예와 일족으로서의 떳떳함이 —— 거기 비하면 자기에게 허락된 유일의 것 —— 사랑의 추억은 너무도 허무한 것 같았다.

조심스러운 헛기침 소리와 함께 미닫이가 조용히 열리고, 오래 함께 살아온 충실한 초로의 식모가 가만히 방 안에 들어선다.

“어두워졌는데…… 불을 켜까요?”

선희는 엎드린 채 텅 빈 소리로 말했다.

“싫어.”

식모는 들어선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창가로 갔다. 그리고

“냉랭해졌습니다.”

이렇게 뇌이며 두꺼운 커튼을 조용히 닫았다.

방 안은 더욱 어두워졌다. 종로의 식모가 들어왔을 때와 같이 그림자처럼 나간 후에도 선희의 자세는 굳은 채로 있었다. 어둠 속에 희끄름이 보이던 그의 모습은 얼마 후엔 아주 어둠에 묻혀 버려 아담한 방은 빈 것같이 시계가 때를 저미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한 채로 있었다.

(1962.)